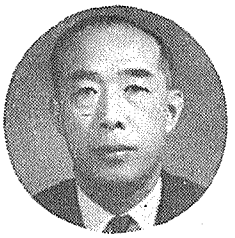
科總의 弱化는 全體會員의 責任

會員이 바라는 科總



이번 9월에 科總이 創立 7周年을 맞는다. 먼저 會員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科總이 앞으로 더욱 크게 發展할 것을 期待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祝願하는 마음 간절하다.

많은 사람들은 現世를 일컬어 "科學의 時代"라고 한다. 科學의 눈부신 發展과 또 그에 關한 迅速하고도 幅넓은 硏究情報의 交換 그리고 分化된 科學을 종합할 수 있는 綜合科學이 實效를 걷우면서 發展했기에 오늘날의 科學時代를 이룩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或者는 오늘 날 科學의 發達尺度를 얼마만한 部分品數를 가지고 그것을 一定한 關聯에 따라 秩序있게 結合된 統一體로 만드느냐?를 가지고 評價하기도 한다고 한다. 自動車, 裁縫針, 宇宙로켓트와 같은 科學作品은 數많은 部分品을 단지 모은 集合體가 아니라 그 數많은 部分品을 一定한 關聯에 따라 秩序있게 結合시켜 統一體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統一體는 반드시 人類의 보다 많은사람을 위해서 有用하게 쓰여지는 것이라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곧 科學이 發達하므로서 人類社會에 貢獻하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科學이라는 學問 역시 하나의 統一體로 만들 수 있는 知識과 그로하여금 人類社會에 貢獻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만 할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知識을 갖추기에는우리의 現實에서 볼 때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다. 우리 會員들은 모두가 時間에 쫓기고 있으며 硏究를 위한 施設이나 硏究費도 充分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家庭 살림 살이에도 크게 神經을 써야만 하는 形便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보다 많은 新刊 文獻도 봐야 하겠으며 硏究費도 있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自己 自身이 專門하고 있는 分野의 位置나 比重이 어떠하며 他分野와의 關聯性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方向性은 어떠한 것인가? 등에 對해서 알아 두는 것도 自己 專門을 正常的인 것으로 發展시키는데 매우 重要한 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個別 報告書에 의하여 理解하고 그러한 여러 分野의 綜合된 正確한 知識을 얻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會員들의 立場을 감안하여 그 어려움을 科總은 可能한 限 支援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例를 들면 他分野의 심오한 專門的論文이 아닌 普偏性의 知識을 여러 會員이 쉽게 얻을 수 있는 機會를 紙面이라든가 共通 綜合 쎄미나 등을 通하여 자주 마련해 주기를 科總創立 7周年을 맞아 부탁드려 본다. (서울農大教授 李 殷 雄)

科總創立 7周年의 慶事에 監하여 우선 會員의 한 사람으로서 深深한 祝福을 드리고 싶다. 科總은 其間 手苦를 많이 했다. 그러나 그 無限量의 勞力에 比해 實效가 적었던 것은 科總自體의 責任이라기보다는 會員全體의 責任이라고 나는 强調하고 싶다.

相當한 水準에 있는 科學者들이 科總의 存在如否이며 그 機能에 관해서 全然 모르고 있음에 나는 놀란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全國의 科學技術學會 團體를 總網羅한 統合機構인 이 단체가 一般國民은 커녕 專門家들에게도 認識이 덜 되었다니 寒心한 일이다. 또한 科總을 알고 있다는 科學者들 間에도 韓國의 科學技術의 元老級 이름만 나열해 놓은 形式的인 團體라고 酷評하는 者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處의 科總에 대한 年間補助額과 그외의 處事를 봐도 이름난 他機關에 比해서 비소하기 짝이 없다. 물론 여러 방면으로 극심한 배려를 했겠지만 보다더 積極的인 育成을 政府當局이 劃策했드라면 科總會舘의 鐵筋이 반년동안이나 露出된 채로 녹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即 科總은 構成要素로 봐서는 가장 權威있고 實効있는 發言權 所有團體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되어 있는 實情인데 이것은 科總自體의 行政責任者분들이 보다더 積極的으로 府政當局側에 認識시키지 못한 까닭으로 본다. 울지않는 아기에게 젖줄 사람 없다는 俗談과 같이 能動的으로 科總의 重要性과 活躍相에 對해 알리고 說得함으로서 科總 스스로가 社會的地位向上에 努力해 줄것을 期待하고 싶다. 아울러 會員의들 科總에 대한 連帶感을 느끼지 못하는 理由가 바로런 點이에 있다는것을 指摘해 두고 싶다. 또한 科總의 各種 行事만 하더라도 名目 以前에 內實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豫算이 없어서……」의 辯明보다는 豫算을 쟁취해 오는 努力이 앞서주기 바란다. 科總은 물론 故「케네디」大統領의 名言을 引用하고 싶을 것이다. 『科總이 會員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願하기 前에 會員들은 科總을 爲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렇다…….

科總을 爲해서 會員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게끔 科總은 우선 努力해야 할 것이다. 科總會員들간에 긴밀한 連帶感만 있다면 科總의 發展을 위해서 서로 서로 自進協力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科總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로서 가장 화가 나고 맥빠지는 일이 科總의 社會的地位의 柔弱性이다. 앞으로 科總도 노력하고 會員들도 서로 團結하여 韓國의 底力向上의 先峰이 되는 보다 더 實力있는 科總으로 만들자.

(延大教授 趙 慶 哲)